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행정체계



鄭敬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IMF

경제위기는 이제까지 외형적 성장에만 몰두한 채 내실을 기하는 데 소홀히 해 온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전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문 예산은 절대 규모에 있어서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삶의 질 향상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전체 재정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로 인한 세수 감소와 그에 따른 긴축재정 속에서도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들의 복지수요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이에 부응하기 위한 보건복지부문 예산의 지속적인 확충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보건복지예산의 양적 확대와 동시에 예산운영의 효율화도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운영방식에 대변혁을 추구하고 있다. 기존에는 어디에 얼마나 썼는가, 계획대로 썼는가에 중점을 두고 이를 통제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이런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책의 성과를 중시하고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했느냐를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문도 이러한 기조 아래 성과 중심,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모든 보건복지사업에 대해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행정체제로 전환하여
서비스의 질과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때 비로소 보건복지부문의
예산운영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터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넓은 의미에서 정책 평가는 정책집행의 결과만이 아니라 정책의제의 발생부터 대안과 결정과정, 정책집행과정, 정책의 영향에 관한 평가까지를 포함한다. 정책의 전 과정에 대한 평가가 수반됨으로써 정책 목표가 명확해지고 구체화되며 이를 통해 평가가능성이 제고되어 정책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평가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와 사업주체들은 각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책의 책임성(accountability)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평가가 다시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환류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그 동안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왔지만 그 결과가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는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의 대상과 주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거나 평가결과를 예산편성과 연계하는 데 대한 합의가 부족하였던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사업주체, 전문가집단이 함께 참여하는 공신력 있는 평가집단에 의해 공식적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대상이 확립되고 적용되어 그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우선순위의 설정이나 사업의 확대, 축소, 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문의 사업에 대한 인

센티브 부여 방안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보건복지부문에서는 사업실적이나 서비스 질 제고 대책으로서 경쟁원리의 도입이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장기적으로 사업주체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서비스 전달체계의 질을 상향평준화시키는 동시에 기관별 정액일괄지원에서 벗어나 개별 프로그램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의 발굴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용 예산을 따로 수립하여 다각적인 방식으로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은 정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예산항목을 단순화하고 총액예산사업의 범위와 예산 전용권을 확대하는 등 예산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예산운영상의 환류체계 강화는 수요자가 참여하는 행정체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급자 중심의 보건복지행정체제에서 일반국민과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보건복지정책의 계획 및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수요자의 의견을 크게 반영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서비스의 질과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때 비로소 보건복지부문의 예산운영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